현불 논단

불교설화로 청소년 포교를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청소년 포교, 불교 당면 과제
어려운 교리로 진입장벽 높아

남방불교 등 '자따까' 활용해
사원서도 부처님 본생담 담긴
부조 · 벽화 쉽게 만날 수 있어
어린이에게 흥미와 감동 전해

韓사찰 위엄있는 불상 · 불화만
설화 활용 벽화 조성 어떨까
청소년 불교 접근 도움될 것

청소년 포교는 오늘날 불교계에 주어진 숙제이자 당면과제다. 사실 불교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종교가 아니다. 한참 뛰어 놀아야할 아이들에게 앉아서 명상을 하라고 가르쳐야 하고, 한하고 싶은 일이 많은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지키기 어려운 5계를 서약하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일전 잘 아는 출판사에게 '어린이를 위한 불교' 란 주제로 책을 한권 써보지 않겠느냐는 원고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 60페이지 정도의 작은 단행본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고 했다. 흔쾌히 승낙하고 책상에 앉아 집필을 하려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석달 후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기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는 4성제 8정도 12연기에 대한 교리들로 가득 차 있다. 이 개념들은 어렵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서 욕망으로 물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단언하고 있다. 어른들에게도 어려운데 어린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난해하겠는가?

그렇다면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와 같은 남방불교에서도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4성제 8정도 12연기를 통해 불교를 만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불교설화전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불교와 남방불교는 수없이 많은 설화들에 불교적 색체를 가미하여 생산해왔다. 자따까(Jātaka)로 알려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 아와다나(Avadana)로 알려진 부처님 주변 사람들 덕행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우리들에게 본생담으로 익숙한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는 32성인상과 80종호를 갖추고 윤회하는 세계에 마지막으로 태어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과거 생에서 행했던 많은 공덕들을 열거하고 위대함을 찬탄하고 있다. 이때 부처님은 전생에서 동물로도 태어나고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신으로도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속적 삶과 연결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불교에 대한 흥미와 종교적인 감동을 준다.

인도불교의 사원 유적에서 우리는 쉽게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표현한 부조들을 만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불교 사원들과 네팔의 티베트불교 사원의 벽에는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와 함께 자따까와 아와다나 이야기를 표현한 벽화들로 가득 차 있다. 많은 동남아시아의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사찰의 벽에 표현된 자따까를 통해 불교를 만나고 자따까에서 만난 부처님의 선행과 덕행에 감동하며 불자가 되어간다.

한국불교의 명산 대찰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진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법당 내부 또한 위엄있고 당당하며 기품있는 불상과 불화들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불교사원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자따까와 아와다나를 표현한 벽화들은 찾아볼 수 없다. 부처님 일생에서 8가지 중요한 장면들을 묘사한 팔상도를 보존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팔상도는 사찰의 중심에서는 밀려나 있다.

청소년포교가 시급한 현실에서 불교의 설화전통을 복원하고 사찰의 내 · 외부를 재미있고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종교적인 감동을 주는 설화들을 표현한 벽화들로 가득 채우면 어떠할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절에 오기를 즐기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불교설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불자로 커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特別기고

국민 화합, 코로나19 치유 백신



법진 스님
보타낙가사 회주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서 퍼진 코르나19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하지만, 입원실이 부족하고 병원 자체도 전염 위험성이 있어 자가 격리한 자체 치료법을 권장하는 것 같다. 가택연금 아닌 연금인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라는 훌륭한 재가불자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8천여 사문과 3만 2천 보살들과 성문, 제석천, 범천, 사왕천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인 대중과 함께 계실 때이다.

유마거사가 짐짓 중생들을 위해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문수 보살을 통해 문병을 갔다. 하명 받은 문수 보살이 환자를 병문안하기 위해 간다하니 문안을 자청한 8천명의 보살과 오백사문, 모든 대중도 함께 가길 청했다. 그래서 문수 보살은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유마거사는 문수보살이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같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많은 대중을 어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한참을 생각한 유마거사는 신통으로 병상의 침대와 모든 물건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작은 방을 보살 8천 여 명과 사문 오백 등 동행한 모든 제천의 신들이 다 들어오고도 여유 있게 넉넉히 만들었다.

유마거사는 재가 불자이지만 출가 사문 못지않은 수행 능력으로 신통자재 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부처님 안위를 전하며 "거사님께서는 어찌 편찮으시며, 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내 병은 중생들의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아픈 것이며 병의 근원 자체는 모든 것이 자아의 집착서 온 것입니다" "언제쯤 쾌차하실 것 같습니까" "중생들을 다 제도하여야 낳을 것입니다"

이 유마거사와 문병한 문수보살과의 대화는 우리 중생들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다 같은 동행인이라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었다. 유마거사 뿐 아니라 지장보살님 서원도 모든 지옥(고통 받는 중생들)고를 해탈해야 본인도 성불해 등과를 얻을 것이라 서원했으며,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사생육도(四生六道)를 만행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중생과 아픔을 함께하는 대승적 사고방식인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진실로 정성을 다해 괴질로부터 사람을 살리려 한다면 천신이 먼저 감응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코로나 열병이 무섭기는 해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 국민이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전라도 지방서는 대구 환자들이 병실이 부족하면 전라도 쪽 병원으로 옮겨오라고 하는가 하면, 전염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원 봉사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면 코로나19 또한 화합의 백신이 되어 줄 것이다.

필자는 매일 새벽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절한 약사여래 기도를 한다. 이 시방세계서 코로나 괴질이 깨끗이 사라질때까지 나의 기도는 계속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방역대책 본부와 의료진 및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社 說

봉축행사 한달 연기에 부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연등회와 봉축행사가 한 달 연기됐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개최할 수 없기에 '연기' 라는 용단을 내린 것이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 윤4월 8일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는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연등회와 봉축행사를 연기한다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의 발표처럼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린 불교계의 대승적 결단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윤4월 초파일인 5월 30일로, 4월 25일 예정된 연등회를 5월 23일로 일정을 바꿔 개최한다. 나아가 기존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 종단협 소속 1만5000개의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를 입재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 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중생이 아프고 괴로운 데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불교가 보여준 용단은 이 같은 대승불교의 정신에 바탕하고 있다.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긴 만큼 불교계는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도 방심하지 말고, 준비 과정과 모임에서도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하루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5월 30일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병마 극복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

참선지도자協, 간화선 중흥 계기

간화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과 참선 명상 보급에 앞장 서 온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활동 전개를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3월 12일 서울 참불선원에서 발기인 대회를 연 것이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참선수행과 관련 문화의 진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간화선은 이를 이끌어 주는 선지식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기에 협회의 행보가 주목을 받아왔다.

사단법인을 통해 참선지도자협회는 국내 유일의 국가등록 '참선지도사' 자격과정을 운영한다. 이는 선승과 명상의학계, 선학자들로부터 검증된 명상법을 이론과 겸비해 가르치는 이를 말한다.

그동안 간화선은 현대사회서 각광받는 명상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발전해오고 있었다. 걷기명상과 좌선의 만남인 2018DMZ세계평화명상대전, 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참선아카데미 대강좌와 강남 한복판에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한 2019대한민국 명상포럼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불교는 명상 붐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명상, 응용명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화선을 일반 대중들에게 직접 지도하기보다는 쉽게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자 발굴과 육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명상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하고 싶은 이들이 간화선의 종장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 실제 수행을 하는 선승들과 각 단체 참선명상지도자들이 모여 한국불교의 정진문화와 전통수행법을 개발하는 협회의 탄생에 박수를 보낸다.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우리 사회에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옥천범음대학
불교의식 특별반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모집인원 : 30명
▣ 전형일자 : 2020년 3월 31일까지
▣ 수 업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4시
▣ 지도교수 : 조현성 스님
▣ 교육과정 : - 도량석·종송·향수해례·삼보통청·사시불공·중단퇴공·각단불교의식·상용영반·식당작법 등
- 각종행사 불공의식
- 불상점안·사다라니작법
- 예수재작법
- 사물 및 불교무용(바라, 나비춤, 법고무 등) 심화교육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